

1천억 원대의 대기업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학력보다 능력을 보고 고졸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와 공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뤄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9년 연속 100% 취업 성공신화를 이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금 지원에 역발상으로 화답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핵심 장비의 공동개발로 수입 대체효과를 창출한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여성 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베푸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기부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공익을 창출하는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습니다.

공생발전으로 이루는
행복한 세상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공 생
발 전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차례

01 모두가 승자가 되는 행복한 공존을 꿈꿉니다 4

02 공생발전이란 무엇인가요? 8

03 공생발전, 왜 필요한가요? 14

04 공생발전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요? 20

05 공생발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24

06 공생발전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8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정되고 더 풍요로워지려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경쟁하되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미국 월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탐욕경영' '경제양극화' 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경쟁이 탐욕을 키워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라는 국정지표를 내놓으며
세계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온 이명박정부는
모두를 아울러 실천할 수 있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개인과 국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부자가 모두 행복한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공생발전

01

모두가 승자가 되는
행복한 공존을 꿈꿉니다



우리 역사에는 공생발전의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경주 최 부잣집'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를 이어온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민은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부자라 하더라도 3대 가기가 어려웠다는데, 300년 동안이나 부를 지켜왔습니다. 이 가문에는 본받을 만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1만 석 이상의 분에 넘치는 재산을 모으지 말 것이며, 찾아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 다른 사람의 논밭을 사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지도 있었답니다. 한 해 3천 석을 수확하면 1천 석은 찾아오는 과객에게 베풀고, 1천 석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 때문에 최 부잣집이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는 것이겠지요.

조선 후기에 살았던 김만덕은 제주도 관기 출신으로, 양인으로 신분이 바뀐 뒤 객주를 꾸려 큰 재산을 모았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 몰아친 폭풍우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어렵사리 모은 재산 대부분을 구휼미로 내놓아 백성을 기아에서 구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헌신한 김만덕의 선행을 정조대왕은 친히 치하했으며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도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많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21세기 우리나라에도 공존의 꿈을 키워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행복한 공존을 일구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SK그룹은 최근 매출 1천억 원대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자회사인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3년간 고졸 사원 2,7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기업도 올 신규채용 인력 중 고졸 사원을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3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졸 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학력보다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2004년부터 협력사와 공동으로 원가절감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재료비 절감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현금 보상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제 실시로 협력업체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포스코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행복한 공존을 꿈꾸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생발전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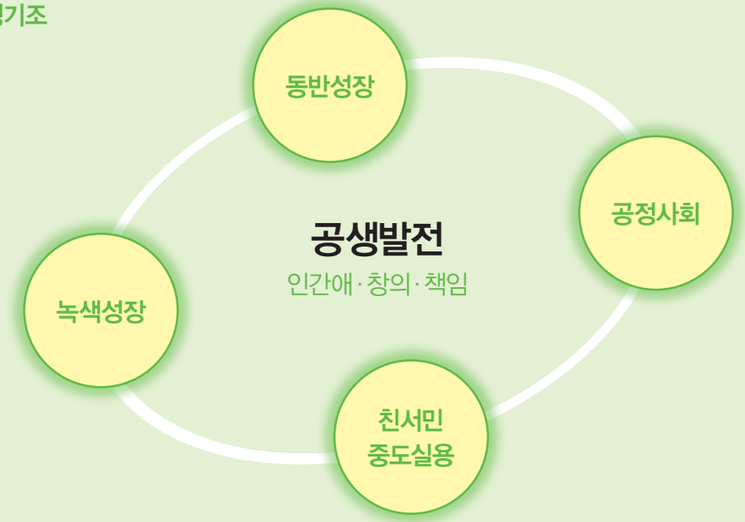
공생발전은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철학입니다

2011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개발과 환경,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같은 그동안 서로 대립하던 것을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공생을 추구한 녹색성장'(2008년), '계층 간 공생을 위한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공정사회'(2010년)와 같은 국정방향 역시 그 가치통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정부가 추구해온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일관된 사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밝힌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발전체제'를 '공생발전'이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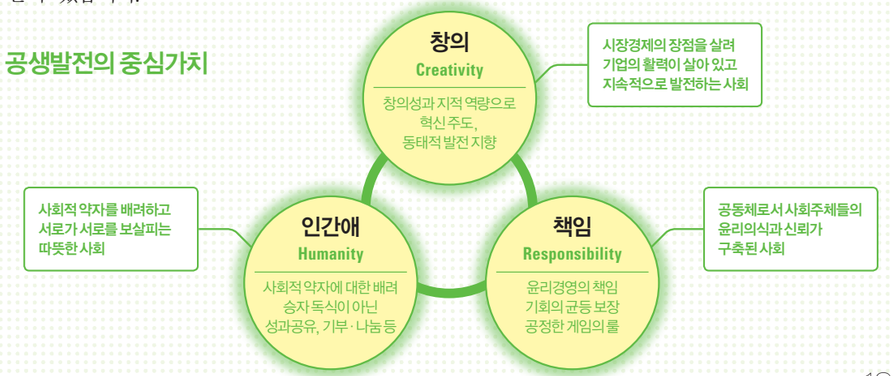
공생발전
국정기조



공생발전은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입니다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을 조화롭게 하면서 진화·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입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를 승자독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씀으로써 시장경제를 진화·발전시키자는 뜻이지요.
따라서 그 바탕에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 창의성과 지적 역량으로 혁신을 주도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인간애, 공정하고 바른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발전의 중심가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케인지안의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고, 1970년대 이후 30년간 무한팽창과 이익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있습니다. 공생발전은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 正+反=合의 진화·발전

18~20세기 초	1930~1970년	1970~2000년	2000년~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
●시민혁명·산업혁명	●1,2차 세계대전 ●1930년대 세계공황 ●공산주의 출현	●공산권 붕괴 ●금융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양극화 ●승자독식 ●시장실패

시장경제가 면역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부자와 서민,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입니다.

공생발전

03

공생발전, 왜 필요한가요?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부격차와 실업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빈부격차가 커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우선 경기를 회복하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2011년에는 새로운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유럽형 복지사회가 양극화 위기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세계가 놀랄 만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세계시장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2009년 0.2퍼센트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을 2010년에는 6.1퍼센트로 끌어올렸으며,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07년 이후 3년 만에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층 간 격차가 그대로 남아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불러온 청년실업과 고물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장·단기적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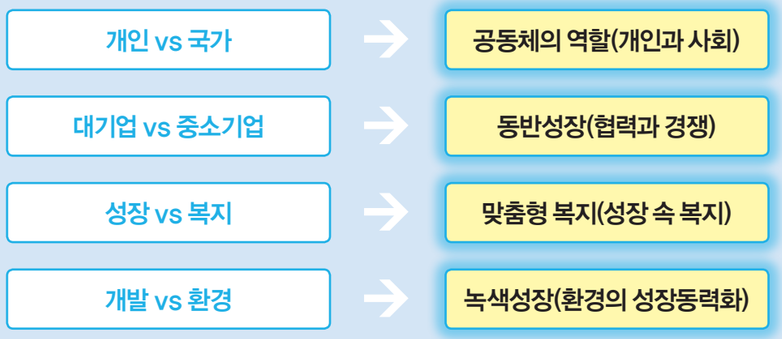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이 모두 한계를 드러낸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위기 국면은 성장과 환경, 성장과 분배 같은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생발전은 시대적 고민이 낳은 필연적 결론입니다. 공생발전은 무엇보다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가치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관계로만 파악하던 과거의 시선으로는 든든한 중산층을 키워 내수를 살릴 수도,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부격차 축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 : 솜의 길





공생발전

04

공생발전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요?



공생발전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이익 증가도 가능하게 합니다

❶상호보완성 공생발전의 기본원리는 우선 상호보완성입니다. 공생발전 경제에서는 각 경제주체 간 경쟁적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협력관계를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❷지속가능성 공생발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함께 아우릅니다. 현재 세대의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생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지속가능성입니다.

❸공동체 지향성 개별 경제주체가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할 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고 결국 사적 이익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익을 함께 지향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공생발전의 기본원리입니다.

❹다양성·개방성 공생발전은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념 대립과 각종 차별을 넘어 다양성을 바탕으로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창조적 대응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창조적 대응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❺자발성 사실 공생발전은 정부정책 등 외부의 힘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 자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생발전
05

공생발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광복절 경축사 이후 많은 정책분야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력편견 없이 능력 위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졸자 채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9월 2일)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9월 9일)했으며,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법〉을 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란?** 새롭게 형성·발전되고 있는 그린(Green), 소프트(Soft), 라이프(Life) 산업 분야의 건전한 기업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등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공생발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역할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자발적 인식과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자본과 노동,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주부의 노력은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타는 노인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택시기사는 친절한 서비스로 승객도 즐겁게 하지만 자신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공생발전하는 우리 사회를 만드는 큰 실천입니다.

공생발전은 우리 사회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 속에서만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공생발전

06

공생발전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반성장으로
미래의 기회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압축성장' '고속성장'이라는 말에서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산업화의 속도는 성공의 정도를 결정했습니다. 즉, '빨리빨리'라는 말로 한국인의 삶과 의식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른 성장과 성공만을 기억하는 성과주의나 일등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탐욕을 불러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협력적이고 상호적 관계를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의 성장 기회를 함께 나누어 전체 파이(pie)를 키우고 사회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대기업이 있기에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기에 대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나아가 경제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져야 공존할 수 있다는 원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자는 것이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거래가 없는 업체와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요즘 삼성전자의 화두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협력업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제품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삼성전자의 협력 파트너로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CEO 직속의 상생협력센터입니다. 삼성전자는 구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는 등 상생경영 활동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상생협력에 동반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연히 삼성전자의 협력사 진입은 더 넓어지고 쉬워졌습니다. 획기적인 것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공동개발 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이나 혁신을 중소기업 또는 외부개발자와 공유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경영 노하우를 협력사에 전파하기 위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임원급으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로 상생협력의 롤모델 구축

올해 포스코는 〈Fortune〉이 해마다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에서 철강 부문 8개 기업 중 1위에 올라 쟁쟁한 글로벌 철강사를 보란 듯이 눌렀습니다. 앞선 조업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코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생협력입니다. 포스코의 상생협력은 성과공유제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경영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지난해까지 모두 402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성과공유제를 기존 1차 협력기업에서 2~4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포스코는 기술력을 갖춘 매출 1천억 원대의 협력사 3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원자재 가격이 계약 체결 시점 기준 가격과 비교해 일정부분 올랐을 때, 협력기업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조정하고, 그 조정 내용이 2~4차 협력기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롤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위기 타파를 위한 상생 노력

현대건설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파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지난 1월 신재생 에너지 전문 중소기업과의 상생 연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에 특화된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GS건설의 동반성장위원회는 4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통합공사관리시스템(TPMS)을 도입, 협력업체가 일한 공사 대금을 하루 단위로 즉각 결제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 교육 및 경영 자문 등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온 대우건설은 지난해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협약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기업인 SH공사는 전문건설업체 상당수가 원도급자로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선급금과 현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자금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보통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한 뒤 결제가 이루어져 대금이 통장에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하나은행의 '상생패키지론'입니다.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했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 결제 전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익을 제대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나선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과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한 KDB산업은행은 수출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대기업과 특별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대기업 1차 협력기업인 서울반도체·세종공업 등과 상생펀드를 조성해 2,3차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우리금융그룹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가 납품과 검수가 완료된 후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학력차별을 넘어 능력중심 사회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습니다. 2010년에는 8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전문계 고교조차도 학벌 지상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 홍수에 휩쓸려 2009년 대학 진학률이 73퍼센트를 웃돌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취업률은 16퍼센트 선에 그쳤답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마당에 학력 인플레이션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또 다른 풍조가 되었습니다.

공생발전이 정착하면 본래 취지대로 전문계 고교 졸업장만으로도 사회와 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인기가 더 높아져 자연스럽게 우수한 학생이 전문계 고교를 진학하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교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 재훈련 예산을 늘리고,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보조와 세금 우대 등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또 중소기업 고졸인턴을 올해 1만 2천 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 역시 특성화고 졸업자와 제조업 종사자에서 일반계고 졸업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취직할 수 있고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졸 기술자가 절반인 반도체 비메모리 강소기업

2011년 9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윌테크놀러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가 열렸답니다. 연 매출 200억 원대, 직원 23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회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생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학력차별 철폐와 고졸자 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칩 검사장치인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 분야 선두주자인 일본 에이펙스사에 기술을 역수출할 만큼 실력이 '짱짱한' 강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직원 중에 고졸 학력 직원은 모두 97명으로 전체의 42퍼센트에 이른답니다. 그것도 관리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까지 학력제한 없이 채용해 고루 분포되어 일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경력 4년 차 고졸 사원의 대부분이 대졸 초임 연봉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직업훈련 기회도 고졸자와 대졸자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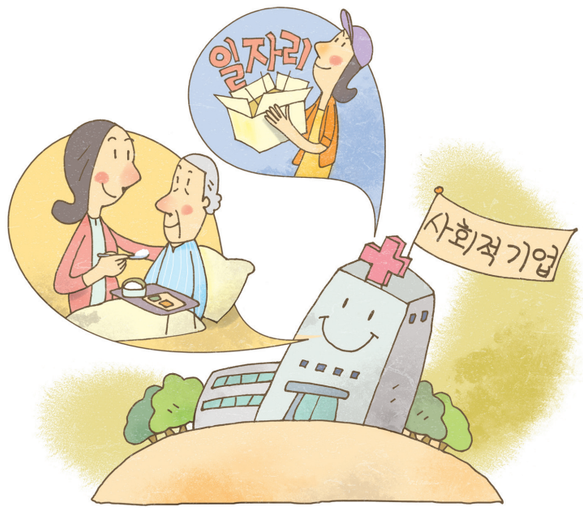
9년 연속 100% 고졸취업 성공신화 창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부산여상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연속 취업 희망자 전원이 취업한 학교입니다. 2010년에는 취업 희망자 175명 전원이 삼성전자와 LG상사, SK해운,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입사했습니다.

부산여상은 1970년대만 해도 중학교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내에 들어야만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 몰렸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이후로는 사회 분위기가 대학 진학으로 바뀌면서 일반계 고교에 밀려 주춤했으나, 2007년 무역과 금융 분야 특성화고로 전환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취업-후진학'의 진로지도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임금의 대졸자 취업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머지않아 '전문 자격을 갖춘 고졸'이 대접받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며, 교사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신입생에게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진출해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취업을 권유한 덕분이랍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주는 사회적 기업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환원되거나 재투자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기업의 수나 관련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맞추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500여 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과 1천여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유급 근로자도 2007년 2,500여 명에서 1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대기업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사회적 기업을, 높은 사회적 효과를 지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설립 지원에서부터 무료 경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공생발전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자립이 어려운 여성 가장에게 일자리 제공

간병사업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다솜이재단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여성 가장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여성 실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2004년 취약계층 여성을 간병인으로 고용,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다솜이재단은 2007년 재단으로 독립한 이후 사회적 기업 1호로 인증받았습니다. 사회 서비스 확충과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모델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재단에 소속돼 있는 간병인 270명 중 80퍼센트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들 여성에게 간병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문 간병인으로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경제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유료 간병 등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있답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면 지원이 끊어질 때 실직과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유료 간병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의 경제 자립률은 103퍼센트로, 외부의 지원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의료 혜택 부여

"조합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차별화되는 의료체계를 거부하며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02년 설립한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시민의 비영리 협동의 힘에 기반을 두어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해나가는 이 협동조합은 의료기관 두 곳과 재가 장기 요양기관 한 곳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방문 진료와 간호 등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체와 함께 통합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 검진,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건강 소모임 활동, 길거리 건강 체크, 저소득 빈곤가정 의료지원 등도 이 협동조합의 주된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경제 시스템 만들기도 이 조합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의 확산



영국 '자선·구호재단'(CAF)과 갤럽이 세계 153개 나라 1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세계 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을까요? 8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부지수는 기부금 액수가 아니라 기부나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인구 대비 기부 비율이나 봉사활동 시간은 서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서구에서의 기부나 나눔 문화는 가진 사람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자 책무이며 서로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여기고 있답니다. 이는 일찍이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천민자본주의와 같은 만성적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랍니다.

뜻있는 국민은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갈수록 경쟁이 과도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활동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행복나눔 N 캠페인'은 N 마크를 단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수익금 일부를 그 제품의 생산 기업이 기부하는 나눔 활동입니다. 이를 일컬어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의 판매활동과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연계해 기업에는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활동이 일상생활 속 나눔활동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롯데마트, CJ엔시티, S오일 등 3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난 4월에는 모금된 6억 원의 기금을 소외 계층에 전달하기도 했답니다.

***공익연계 마케팅이란?** 기업이 공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활동하는 마케팅의 하나로 기업이 비영리기관에 브랜드의 이윤 중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에 앞장서는 나눔의 형태.

참여 안내 행복나눔 N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02-2077-3958, www.crckorea.kr로 연락하면 됩니다.



공생발전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최광식
발행일	2011. 11
제작기획	홍보콘텐츠과(02-3704-9987)
제작협력	보리컴
인쇄제본	삼광문화(www.jusamkwang.com)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gonggam.korea.kr)에서 전자파일(PDF · e-book)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입니다.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강해진 우리 경제를 공생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공생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